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6강, 의인화된 지혜, 1부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6, 은유와 의인화된 지혜, 1부입니다. 성경 잠언에 관한 여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인 7강에서 나는 잠언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살펴볼 것인데, 모두 1장부터 9장까지의 지혜의 의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은 마치 이 책의 페이지에서 행동하는 지혜의 인지적 지적 미덕이 마치 여자, 인간, 여성 인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완전하게 탐구하기 위해, 나는 무엇보다 먼저 지혜와 관련된 의인화의 은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현대 은유 이론에 대한 더 깊은 탐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6강에서는 은유 이론 1과 의인화된 지혜 1, 그리고 7강에서는 은유 이론 2와 의인화된 지혜 2입니다.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인간 정신의 본성입니다.

은유 연구의 핵심 인물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말입니다. Lakoff는 20세기 마지막 4분의 1까지의 사고에 대한 서양 사상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양인들은 우리 자신을 신체적 본성을 초월하는 정신적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세계에 직접적으로 적응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언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외부 세계 자체의 관점에서 정의된 추상적 개념을 투명하게 표현하는 우리 마음 내부의 특권적이고 논리적인 상징 체계입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분석 인지 과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은 정신과 신체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시 Lakoff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고는 시각, 행동, 감정을 지배하는 동일한 신경 구조를 통해 뇌에서 수행됩니다.

언어는 목표를 정의하고 상상하고 인식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감각 운동 및 감정 시스템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21세기 초, 증거가 들어오고, 구기 게임이 끝나고, 마음이 구체화되는 시대입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다음 단락은 이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구체화 혁명은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 즉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 육체와 두뇌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의 본질부터 의미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까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 몸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냉혈한 생각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리학은 우리 철학의 개념을 제공합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인식론적 발전은 비유적 언어, 특히 은유, 직유, 환유, 제 유가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비유적 언어는 우리 몸이 뇌를 통해 우리 주변과 내부 세계에서 감각이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신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인간 생활을 위한 이러한 구체화 혁명의 결과는 Lakoff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영역과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인용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 우리가 설정한 모든 목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나 판단,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구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 어느 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 체계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신학이 아니라 덧붙이고 싶습니다. Lakoff는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인 Benjamin Bergen이 2012년에 쓴 *Louder Than Words, The New Science of How the Mind Makes Meaning*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책에서 Bergen은 Lakoff의 작업에 대한 자신의 빛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Lakoff의 서문에 나오는 다소 승리감 넘치는 어조는 인식론적 격변에 대한 그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식을 암시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은유에 대한 우리의 사고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Andrew Ortony 가 편집한 *Metaphor and Thought*라는 제목의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의 첫 번째 판은 Lakoff와 그의 동료 Johnson이 쓴 은유 이론에 관한 획기적인 논문보다 1년 빠른 197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4년 후인 1993년 *Cambridge Handbook*의 제2판에서도 Lakoff와 Johnson의 획기적인 논문인 *Metaphors We Live By*에 대한 언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책은 적어도 실제로는 이 분야의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한 Lakoff의 기여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현재 Raymond Gibbs가 편집하고 있는 *Cambridge Handbook*의 제3판이 나온 2008년이 되어서야 Lakoff와 Johnson의 작업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고 모든 기고자의 손에서 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Lakoff와 Johnson의 작업은 이제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책인 *Metaphors We Live By*는 Lakoff가 Max Turner와 공동 집필한 1989년의 *More Than Cool Reason*이라는 제목의 후속 논문과 합류하여 이제 은유 연구의 예술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1980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 이론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대부분 읽었으며, 나는 Mike Abrams의 1999년 문학 용어집에 있는 다음 요약에 동의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인간이 모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은유를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우리의 철학자와 해석가, 성경을 포함한 문학학자들은 최근까지 은유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명언입니다. 수사학자, 문법학자, 문학 평론가들이 25세기 동안 은유에 관심을 갖고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합류했지만, 우리가 은유를 식별하는 방식,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까? 견적을 종료합니다.

은유 현상에 대한 지적 참여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적절하고 유익합니다. 에이브럼스의 평결은 우리가 어떻게 은유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20세기 초반 4분의 3의 은유 연구에서 탐구의 실제 초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냉정합니다. 다음은 1980년 이전 은유 연구의 주요 원칙에 대한 Lakoff와 Johnson의 요약입니다.

첫째, 은유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이다. 은유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둘째, 은유적 언어는 일반적인 관습적 언어의 일부가 아니다.

대신, 그것은 참신하며 일반적으로 시, 설득을 위한 수사적 시도, 과학적 발견에서 발생합니다. 셋째, 은유적 언어는 일탈적이다. 은유에서는 단어가 올바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일상언어에서 통용되는 은유적 표현은 소위 죽은 은유이다. 즉, 한때는 은유적이었지만 이제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으로 얼어붙은 표현들이다. 다섯째, 은유는 유사성을 표현한다.

즉, 단어가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지정하는 것 사이에는 사전에 존재하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 다섯 가지 요점은 Lakoff와 Johnson의 연구 이후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래된 은유 개념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중요한 통찰 중에서 나는 전통적 은유 이론과 은유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위 참신하거나 대담한 은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반대로 소위 죽은 은유는 매우 생생하며 실제로 인간 사고와 의사소통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이론, 즉 은유 이론의 새로운 이해에서 무시되었던 것이 아마도 은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셋째, Richards에 따르면 1차 주제와 2차 또는 보조 주제인 흑인, 가끔, 이미지인 Paul Avis에 따르면 테너와 차량으로 구성된 은유의 관례적인 처리는 실제 은유 표현보다 은유의 재구성된 의미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실수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Lakoff와 Johnson의 연구와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코프(Lakoff), 존슨(Johnson), 터너(Turner)의 연구는 현대 은유 이론에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그들의 작업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1980년에 그들의 독창적인 책인 *Metaphors We Live By*가 출판된 이후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은 은유 이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책에서 그들은 은유에 대한 다른 많은 설명과 다르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제 있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인용하자면, 그것은 단지 한 줄입니다.

은유의 본질은 한 가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은유의 본질은 한 가지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야.

이것은 처음에는 가정적이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식은 은유 이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의미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 더 가깝고, 다른 하나는 은유적 표현의 도움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은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초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 정의의 또 다른 특징은 이해와 경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은유가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은유에는 다감각적 인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최근 통찰은 전통적인 은유와 소위 새로운 은유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냉정한 이성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Lakoff와 Turner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유가 복잡하고 고도로 구조화된 전통적인 은유 시스템에 속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은유가 탄생합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은유가 대부분 이 거대하고 고도로 구조화된 고정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관습적이기 때문에 노력이나 자각 없이 끊임없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새로운 은유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되지만, 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은유 체계가 공간적 추론에 기초한 추상적인 추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건적을 종료합니다. 은유와 사고의 제3판은 2008년에 출판되었으며, 현재는 The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 and Thought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이는 은유 연구에 있어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은유 이론에 대한 이론적 세부 사항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7과에서 이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의 나머지 부분인 6강에서 하고 싶은 것은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의인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강 2부에서는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의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식별하는 데 지혜의 의인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메시아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최소한 살펴보겠습니다. ,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강의는 신약성서가 아닌 잠언에 대한 강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완전히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석학적, 철학적, 신학적 질문 중 일부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의인화, 인간으로서의 지혜에 대한 비유는 잠언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몇 분 동안 나는 잠언에 나타난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브루스 월트키의 이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별 본문에 대한 그의 분석은 나중에 의인화된 지혜를 언급하는 잠언의 특정 본문을 다루는 나의 처리와 어느 정도 통합됩니다. 잠언에 대한 그의 훌륭한 주석에서 브루스 월트키의 취급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정은 인용하자면 서문, 즉 1.8장부터 8장 36절까지의 의인화된 지혜가 솔로몬의 잠언, 즉 잠언 10장부터 29장이라는 것입니다. Agur와 Lemuel이 추가되었으며 인용이 끝납니다.

세부적으로 Waltke는 자신의 페르소나 또는 모습과 그 뒤에 있는 현실을 구별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장과 8장 1절부터 36절의 핵심 구절 외에 6장 22절에서는 여자의 지혜가 길잡이로, 7장 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매나 신부로, 9장 1절부터 6장에서는 여주인으로 의인화된다. 월트케는 1장 20절부터 33장을 빛으로 해석했다. 8.1에서 36까지의 두 구절에서만 지혜가 성문에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여 장황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나는 Waltke의 말을 인용합니다. 만약 그 가능한 방정식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녀는 원시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것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과 매우 구별되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tke의 주장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를 다양한 유형의 여성으로 식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녀의 예언적 가르침과 신성한 역할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Waltke는 최근 학문에서 이루어진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다양하고 다양한 식별을 대부분 열거하고 인용하자면 현자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현자의 두루마리를 들고 지혜를 지닌 독특한 여성으로서의 지혜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신 같은 왕관, 끝 인용문.

그리고 그는 Claudia Camp의 작업을 따랐던 Michael Fox의 논평을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용하자면, Lady Wisdom은 알려진 단일 현실을

대표하지 않고도 일상적이고 문학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현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Waltke의 이해에서 지혜의 세 가지 핵심 특성은 첫 번째 예언적, 두 번째 지혜적, 세 번째 신성입니다.

다음 확장된 인용문은 잠언 1~9장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의 페르소나의 복잡한 표현에 대한 Waltke의 견해를 요약합니다. 나는 그녀의 특성화의 예언 적, 지성적, 신성한 구성 요소가 서로 침투하여 그녀가 유일한 동료인 독특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중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의 거부를 굴욕 속에서 받아들이는 성육신한 천상의 존재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에 대한 예표로서 정경 내에서 기능합니다. 선지자의 열정으로 설교하고 간구하며, 지식인들과 함께 생각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에스카 사람 에단과 같은 평범한 여선지자가 아닙니다. 여성 지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중재하는 독특한 하늘 중재자입니다. 비록 인간보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녀는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기 전에 반응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녀의 책망에 회개하도록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로 거칠고 무너지는 성문에서 대중과 어깨를 비비고 있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이제 저는 Bruce Waltke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해석에서 매우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지만 Waltke의 작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족 수준. 그의 글에는 많은 진실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폭스의 논평과 함께 월트키의 논평이 잠언에 대한 백년 동안의 논평 중 최고의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Waltke가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것은 지혜의 의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강의 초반에 시작한 것처럼 은유 이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Waltke의 독특한 천상의 중재자로서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그림에 세 가지 균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의 실체화 라는 Norman Whybray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보조서 22장에 따르면, 지혜는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탄생하지만, Waltke가 주장한 것처럼 지혜의 기원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어떤 암시도 잠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균열은 프롤로그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인 잠언 1장 8절부터 8장 36절의 인용문이 그녀의 모든 다양한 모습의 지혜, 특히 하늘의 중재자로서 솔로몬의 영감받은 지혜인 마지막 인용문을 의인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월트케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지혜가 잠언에 담긴 가르침을 의인화한다는 월트키의 기본 가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화된 지혜가 하늘의 중재자라는 생각은 Waltke가 올바르게 강조한 사실, 즉 Waltke가 중재하는 내용이 잠언에 포함된 지상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월트케의 해석에서 그녀는 매개자인 동시에 매개된 자료이기도 하다. Waltke의 의인화된 지혜 표현에 있어서 세 번째 균열은 기독교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포함하는 잠언의 신학에 대한 그의 논의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여성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여성의 지혜의 관계. 그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에서 Waltke는 서기 125년 저스틴 순교자 이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리스어 번역인 소피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서 없이 언급된 주목할 만한 예외는 분명히 지혜를 성령과 동일시한 이레나이우스(Irenaeus)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지혜와 그리스도의 등식의 기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에서 두 인물 사이의 중첩이었습니다.

둘 다 성경 본문에서 선재자이자 창조의 주체로 묘사되었습니다. Waltke가 관련 있다고 언급한 본문은 잠언 3장 19~20절, 8장, 22~31절,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5~16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Waltke는 잠언 8장의 문법적-역사적 주석은 교부적 주석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인화된 지혜와 잠언의 내용 사이의 방정식에 대한 자신의 초기 논제를 확장했습니다.

나는 Waltke의 말을 인용합니다. 솔로몬은 여성의 지혜를 휘포스타시스, 즉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대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구체적인 천상의 존재가 아닌 자신의 가르침으로 식별했습니다. 더욱이 Waltke는 잠언 8장, 22-31장의 고대 역본과 유대 지혜 문헌은 신약성경의 높은 기독론에 대한 일관된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칠십인역, 멘지라, 필로, 솔로몬의 지혜, 예루살렘 타르굼을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그의 말은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익명의 유일신론자, 죄송합니다. 이 익명의 유일신론자는 오리겐의 용어를 사용하면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를 중재하는 조물주의 힘으로서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Waltke는 신약성경의 높은 기독론의 예측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높은 기독론이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의 특성화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인용하자면, 기독교 시대 전환기의 유대인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하는 수단을 가진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된 대리인으로 표현되었지만 잠언 8장 22-31절에서는 높은 기독론을 인용하거나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이 긍정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Waltke는 잠언 8장 22-31절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를 자세히 설명하는 유대인 기록이 신약성서의 작가들이 나사렛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합니다. 둘째, Waltke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잠언 8장 22-31절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셋째, Waltke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높은 기독론을 발전시켰을 때 잠언 8장 22-31절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Waltke가 진술 1에서 확인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Waltke의 첫 번째 거부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실제로 잠언 8장 22-31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언 8장 22-31절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월트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의 의인화인 6강의 2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화된 지혜에 관한 잠언의 일부 본문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는 1장 20-33절, 8장 1-36절, 9장 1-6절과 11-12절에서 완전히 의인화된 여성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지혜도 덜 발달된 의인화로 나타나거나 아마도 그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장 1-3절, 3장 13-20절, 5장 5-5절에서요. 9장 11절과 13절, 7장 4-5절입니다. 나는 이제 1장 20-33절의 의인화에 대한 일종의 은유적으로 민감한 해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태도를 지닌 여성으로 의인화된다.

그녀는 배우라는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강의합니다. 분명히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입니다. 20-21절은 그녀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합니다. 22-33절은 그녀의 실제적인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멸시받는 여자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성 인간의 입장에서 지칭합니다.

그녀는 NRSV의 생각을 번역한 23절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했습니다(24절). 그녀는 웃으려는 의도에 대해 말합니다(26절). 그녀는 이전에 그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한 결과 고통을 받아야 할 때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26절). 28.

29-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의인화는 여전히 문학적 수준에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경외심과 함께 권고와 책망을 병행합니다. 이 구절의 의인화는 문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자의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능숙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서적 충격을 준다.

그러나 지혜가 단순히 인간적인 것 이상, 거의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성격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움에 대한 깊은 열망에서 태어난 그녀의 취약함과 지혜를 거부하는 위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현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유사한 말투를 통해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화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Michael Fox는 자신의 논평에서 유용한 요약を提供합니다. 나는 Lady Wisdom의 첫 번째 담론이 행동보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다룬 것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내면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모든 연설에서 지혜는 어떤 행위가 좋고 나쁜지 설명하기보다는 지혜 자체, 즉 지혜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달콤하든 가혹하든 지혜의 메시지에 대한 사랑의 개방성과 그것을 거부할 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학습에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없이는 피상적인 학습조차 불가능하며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맥간에서는 올바른 입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겁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의인화된 지혜의 경멸적인 말 뒤에 숨은 수사학적 의도를 강조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절박한 호소를 쓴 시인은 독자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지적이고 종교적인 사업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지혜를 생생하게 만듭니다. 이제 잠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전체에는 확장된 if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동의어에서 화자는 1절부터

2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지혜와 동일시합니다. 내 아들이, 네가 내 말과 내 계명을 받아들이거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if 조건의 결과인 보철은 3절에서 계속되며, 그 다음에는 의인화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실제로 통찰력을 구하고 이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4절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두 직유는 지혜와 그 동의어, 즉 통찰력과 이해에 대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은과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여 구체화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의인화와 구체화 사이에는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여기서 잠시 멈춰서 구체화가 의인화의 반대에 대한 기술 용어임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화는 사물이나 추상적인 현실을 살아있는 존재,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화는 생명체, 흔히 인간을 사물로 변화시킵니다. 객관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2절부터 4절의 의인화와 실체화 사이에는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너희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희 마음을 명철에 기울이게 하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통찰을 구하고 지혜를 높이면, 이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해를 위한 목소리, 즉 2~3절의 의인화는 소중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인 연락 추구를 통해 꽃피우는 관계를 불러일으킨다. 은처럼 구하고 숨은 보화 같이 구하면 그것이 4절의 구체화라는 말은, 원하는 결과, 즉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2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의인화와 동일시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가르침의 관점은 잠언 2장의 실제 단어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보이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모임집에 있는 훈계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된 결과인 아포도시스는 5절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첫 절에서 제안된 행동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리라.

이 둘의 결합은 지혜의 정점이다. 이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6절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지식과 총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확장된 프로타시스는 Fox에 따르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 앞에 닥쳐오는 과제의 규모를 암시하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지혜는 너무나 고귀하고 멀기 때문에 지혜에 접근하는 것은 직접적인 호소(3절),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계시(6-7절)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가 자기 계시를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인화의 영향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노력에 대한 강조와 지혜의 바람직성에 대한 개념을 결합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을 통해 그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격려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기 계시와 동일하다.

의인화라는 문학적 장치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지혜의 분배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도전하고, 약속하고, 격려하는 데 교묘하게 기여합니다. Waltke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창조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합리적이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Carol Newsom의 말을 사용하면 충성이 이해보다 우선합니다. 이제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확장된 마카 리즘(macharism) 으로, 마이클 폭스(Michael Fox)가 표현한 것처럼 소유자의 행운을 외침으로써 특정 미덕을 장려하는 데 사용되는 장르입니다.

행복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권장되는 지혜의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소유자는 행복하다고 선언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통해 명예와 부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6절). 14절에서 15절의 비교는 지혜의 가치와 거기에 언급된 다양한 귀금속의 가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귀금속의 가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손과 발이 있는 여자로 묘사됩니다. 오른손으로는 그 주인에게 장수를 주며 왼손으로는 부귀영화를 얻게 하느니라(16절). 그 행실 곧 지혜를 행하는 자들을 대하는 행실은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준다(17절).

의인화된 지혜가 귀중한 상품보다 낫다는 진술은 지혜 가치의 관계적 측면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의 3장 14절부터 15절에 대한 논평에서 웅변적으로 표현됩니다. 지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은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줄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있지만 집은 아니고 여자에게 보석을 줄 수 있지만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사랑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화는 수명이 짧습니다. 18절에서는 지혜가 생명나무로 구체화되고, 절정절인 19~20절에서는 지혜가 하나님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신 지혜가 그분의 미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지혜와 총명이 병행되는 그분의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시편 104편 24절의 절정적인 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사용하신 바로 그 지혜를 그들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의인화는 문학적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찾고 찾은 이들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가며 부와 명예, 장수를 내밀어 보상하는 지혜의 이미지는 강한 감성적 매력을 지닌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도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미덕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주요 성품 중 하나이며, 인간은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Bruce Waltke는 19절부터 20절까지가 의인화된 지혜가 창조보다 앞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7과의 잠언 8장을 볼 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간단한 문학적 의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신성한

속성. 이 점은 잠언 3장에서는 강조되지 않지만 나중에 잠언 8장에서 지혜의 선재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점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잠언 4장 5~9절, 11~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 1~3장과 유사하게, 지혜와 통찰력은 아버지의 말씀과 평행하기 때문에 5절에서는 지혜가 아버지의 가르침과 동일시됩니다. 6~9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화관과 면류관을 씌워 주고(5, 7절) 소중히 여기며(6, 8절) 포옹하고(8절) 그를 지키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11절과 13절도 의인화의 일부입니다. 13절의 여성 대명사 접미사는 11절의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지만 남편과 그의 남편의 전형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아내.

Fox는 고대 태도에 대한 현대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보호자는 은유적인 여성, 자신의 제자를 지키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의인화된 지혜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Fox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의 태도가 전통적으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여성을 정기적으로 남편의 후원자로 여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역할은 그녀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녀에 대한 청년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인 역할 전환을 구성합니다.

지혜의 여인의 지배력은 특히 의인화가 6절로만 시작하는 경우 어머니의 모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그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해야 함을 시사하는 은유적인 진술입니다. 다음 생각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은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지만, 나는 현대 은유론을 활용하여 나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사에 대한 신선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처음에는 5절에서 얻다라는 동사를 통해 표시되는 지혜의 획득이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판매용으로 판매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을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7, 22.16-17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획득하다라는 동사는 잠언 8장 22절에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에서 지혜를 획득하셨다고 말합니다. 셋째, 잠언 4장 7절에도 얻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확실히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4장 7절과 잠언 8장 22절에서 시작이나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레쉬트 (reshit)라는 단어의 출현과 일치하는 상황은 잠언 4장 5-9절과 잠언 8장 22절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더욱 강화시킨다. 넷째, 히브리어 성경에서 '얻다'라는 동사의 용법은 신부값을 지불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장 흔히 동사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아들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예는 남자와 여자 노예를 사는 레위기 25장 44-45절과 같은 구절에서 입증됩니다. 그러한 여성 노예의 획득은 때때로 그들이 구매자의 첩이나 아내가 되는 것을 수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모두에게 이 동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구매의 측면이 주목할 만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논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룯기 4장에서 보아스가 룯을 산 사건입니다. 룯기 4장 10절에서 보아스는 내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룯도 내 아내로 얻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얻는 일이 부부 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명시적으로 언급되며, 화자에게는 결혼의 측면이 분명하게 전면에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분명해지듯이, 여기에서도 가격으로 구매하는 측면이 암시되고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거래 이전에 보아스는 자기 친척에게 나오미의 손에서 당신이 죽은 사람의 과부인 모압 여인 룯도 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의 기업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스 4.5. 여성 Ruth의 인수는 Leveret Law에 따라 토지 판매와

관련된 거래의 일부입니다. 획득하다라는 동사는 상품과 여성에 대해 무분별하게 사용됩니다. 비록 여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그녀와 결혼할 것임을 분명히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아스의 구매 선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얻었음을 너희가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죽은 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언급에는 그의 아내로서 엘리멜렉의 아들의 소유였던 릿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획득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 간략한 조사는 그 동사가 남편과 아내 관계의 시작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실제로 언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측면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잠언 8장 22절에서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고려할 때 이 동사의 이중적 측면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혜를 얻으라는 아버지의 권고가 신부를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신부값을 지불하라고 촉구하는 은유적인 진술이라는 점만 지적하면 충분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는 말씀은 아들이 신부를 위하여 지혜를 얻어야 함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실제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의 대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묵시적인 지불은 7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모든 획득에 대한 대가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획득하다의 은유적 용법에 따라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 진술은 과장된 표현이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의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같은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획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지혜로워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얻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이해력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동사는 '매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도하다'와 대조되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용 품목은 문자 그대로 구매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는 전적으로 은유적입니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런 노력이 잠언 15장 3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명철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 관용구에서도 경제적 거래라는 비슷한 용법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잠언 17장 16절과 잠언 18장 15절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명철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대와 최근의 관습과 히브리어 성경에서 동사 to acquire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5절부터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며, 이는 여기에 구상된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남편 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지배적인 파트너로 삼는다. Waltke는 잠언 4장, 5장부터 9장까지가 여성의 지혜를 훈계에서 획득하고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리고 동기에서 연인에게 보상하는 후원자로서 묘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수업의 의미를 대부분 포착하지만 지혜의 묘사는 Waltke가 시도한 것처럼 훈계의 신부와 동기의 후원자로 깔끔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훈은 지혜를 아들이 법정에서 모이는 강력한 후원자로 제시합니다. 예상되는 관계는 복잡합니다.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재정적 여유를 지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를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아들은 구혼 기간과 그 이후에도 그녀에게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만약 그가 그녀를 얻는다면 그녀는 그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학생과 그의 연구 대상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역전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으로 묘사됩니다.

강의에서 지혜의 형상은 생생한 문학적 의인화 수준에서 작동한다. 그녀는 젊은 남자의 애정, 즉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그녀의 제자인 남편의 충성심에 보답하는 권위 있지만 관대하고 매력적인 여성인 강력한 후원자의 형태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묘사합니다. 문학적 전략은 애정, 존경, 존경, 신뢰, 명예 등 청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지혜는 훌륭한 짝으로 묘사되고, 아들은 자신의 신부로 지혜를 얻게 된다면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지혜의 의인화에 대한 은유에 대한 이 모든 상세한 분석을 왜 진행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때와 지금의 지혜의 습득이 아마도 낭만적인 추구의 관념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데에는 로맨스, 욕망, 거의 성적인 성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다. 그것은 엄청나게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상입니다. 이제 강의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다른 의인화에 대해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